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758.71 (-15.58)	814.25 (+2.1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046 (-0.038)	1384.30 (-1.90)

반도체 끌고, 전자 밀고... 전자업계, 2분기 깜짝실적 예고

HBM 수요 급증에 반도체 호황 삼성·SK, '사상최대' 실적 전망 모바일 부품사, 폰 판매증가 수혜에 어킨 판매 늘어 가전도 '好好'

전자업계가 불황을 견뎌내고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반도체의 호황은 물론 부진했던 모바일 부품부터 가전까지 회복하면서 깜짝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급성장 중인 HBM 수요가 증가한 데다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이 줄줄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업계 실적의 기준치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증권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자업계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다. 모바일 부품사의 경우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아이폰과 갤럭시 S24의 판매 증가로 수혜를 입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격차 경쟁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이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납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초격차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2분기 부분별 실적은

이달 말 확정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의 경우 매출 28조원, 영업이익 6조원대를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이미 올 2분기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메모리 사업도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메모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분기 호실적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 HBM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차세대 HBM3E 공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 이후 실적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 수혜도 기대된다. 이날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HBM3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하며 중국 시장에 쓰이는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20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칩이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구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납부 사업을 따내면 글로벌 1위 반도체 탈환이 시간상 문제라는 분위기가

SK하이닉스의 호실적도 이미 예상된 수순이다.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8860억원 등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반도체



용산 대통령실 이어 국회서도 발견된 北 오물 풍선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의 낙하물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도 2개가 발견됐다. 24일 오후 2시27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정입삼거리 일대에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유인물이 발견돼 군 관계자가 이를 회수하고 있다. (원안 사진)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오물풍선이 낙하하고 있다. /뉴스1

체 업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확실시시켰다.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HBM 수요가 AI 확산에 따라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뤘다. SK하이닉스는 4세대인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5세대 HBM인 HBM3E(8단)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 2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밀릴 수 있다고 본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미국인도 반한 'K-뷰티' 아마존 행사 톱3 싹쓸이

아모레, 뷰티&퍼스널 부문 1~3위 달바 등 다수 브랜드 100위 내 포함

미국 대표 e커머스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 행사에서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판매 증가 등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아마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코스알엑스 대표 제품인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96 뮤신 파워 에센스'가 1위에 올랐고, 라네즈 대표 제품 '립 글로이 밤 베리'와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코스알엑스는 지난 2023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회사로, 2018년부터 아마존에서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96 뮤신 파워 에센스'와 같은 주요 제품을 내세워 북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업계에서는 코스알엑스의 영향력이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수출 다각화와 실적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연결 기준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에 따른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해외 사업 매출은 33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6.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482억원을 기록한 중국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으나, 서구권 사업 매출은 105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1.7%라는 고성장을 보였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자사 뷰티 디바이스를 약 1만 대 판매하며 인기를 과시했다. 에이피알이 올해 1분기 아마존에서 판매한 '부스터 H'를 비롯한 뷰티 제품 매출 규모는 지난 2023년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4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올해 안에 아마존에서 판매 매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피알의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에서 내놓은 '제로포맷'도 올해 상반기에만 아마존에서 5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 결과, 아마존 내 스킨케어 화장품 부문에서 '토너&화장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밖에 구달, 달바, 조선미녀, 스킨1004 등 다수의 한국 브랜드들이 이번 아마존 행사에서 뷰티&퍼스널케어 카테고리 100위 안에 포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인기를 뒷받쳤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통·여행사 줄줄이 손절... 회복 불가 우려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LF·다이소·아이파크몰 등 철수 여행업계 피해규모 1000억 관측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쿠티엔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자 대다수 유통·여행업계들은 빠른 손절을,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자 소비자들은 더욱 반발하는 분위기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굵직한 유통업체들도 재빠르게 해당 플랫폼과 거래를 중단하고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해당 유통기업들의 상품들을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LF몰, 다이소몰, 아이파크몰도 해당 플랫폼 전문관에서 철수했다. 유통·식품업계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재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업계는 지난주부터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알린 바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미 판매한 상품도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여행업계의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현

재 티몬 정산 지연 문제로 안내 문자를 전송드린다. 당사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정산 지연에 따른 우려와 무관하게 정산에 문제가 없음을 믿고 고객님의 항공 이용에 지장 없도록 예약/발권 업무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티몬 담당자로부터 정산 대금 무기한 지연에 관한 안내가 최종 확인돼 부득이 '항공 취소 혹은 재결제 안내'를 드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네이버페이, 구글, 페이코, SSG페이, 스마일콘, 엠트웍스 등 대형 제휴처들까지 일제히 해피머니 사용 및 전환을 중단했다.

쿠티엔이 운영하는 AK몰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판매를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오물풍선 실시간 감시해 조치... 심각성 인지"
▲ 여야 학생인권법 논쟁... 이주호 "교권과 별개로 다뤄선 안 돼" /사진 뉴스1

▲ 윤, 체코 총리에 "원전 르네상스 시대, 손잡고 세계 진출"
▲ 검찰,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 대통령실 "음주운전·성추행 등 공직기강 위반, 법·원칙 따라 처리"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사진 뉴스1

기대인플레이션 28개월 만에 2%대... 소비심리 회복 '낙관적'

한은, 소비자동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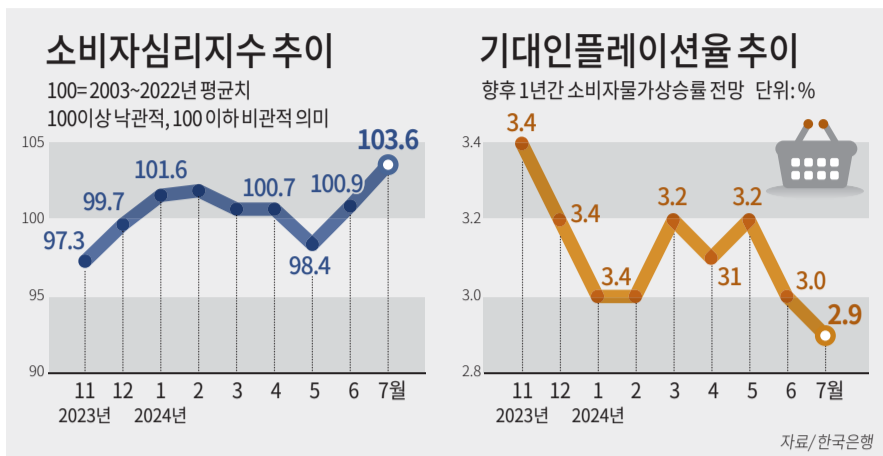
소비자심리지수 전달비 2.7p 상승
소비자들은, 6개월 뒤 금리인하 예상
기대인플레이션율 소폭 하락 2.9%

앞으로 1년 뒤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농산물·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가 소폭 둔화되면서 1년 뒤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7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 '낙관적'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



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5), 가계수입전망(100)은 지난달과 비교해 각각 1p 오

르고, 소비지출전망(111), 현재경기판단(77) 향후경기전망(84)은 각각 2p, 6p, 4p 상승했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평균인 100을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여행 오락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반응도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1년뒤 주택가격 상승 전망

그 외 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6개월 뒤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수준전망은 95로 한달 전과 비교해 3p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은 앞으로 6개월 뒤 금리수준을 전망하는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금리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100보다 낮으면 금리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황 팀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이로인해 앞으로 6개월 뒤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뒤 주택가격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전망(115)은 한달 전과 비교해 7p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황 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기존 7월에서 9월로 미뤄지고, 시장금리 하락까지 이어지며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뒤 물가수준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황 팀장은 "7월부터 지역난방, 8월부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조정이 남아 있다"며 "최근 장마와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왼쪽부터)포스코홀딩스 송중찬 상무, 김경한 부사장, 장인화 회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정한성 부회장,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포스코, 상생·동반성장 공고화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 첫 방문
"앞으로 대·중기 해야 할 일 많아"

김기문 회장 "양 기관 활발히 협력
한국의 복합위기 함께 헤쳐나가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때 '서운'하게 생각했던 포스코그룹이 중소기업과 상생·동반성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를 방문, 김 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 자리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포스코 회장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2013년 5월 정준양 회장에 이어 11년만이다. 당시 정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 확산 선포식' 행사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었다.

포스코에 대한 김 회장의 서운한 감정은 2022년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의 오찬간담회 자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원자재값이 올라도 대기업

들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포스코를 적시해 "작년(2021년)에 단가를 다섯번이나 올렸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어느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뼈가 있는 말을 했다.

이 발언 서두에 김 회장은 "삼성은 같은 데는 원자재를 사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다"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행보에서 삼성과 포스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미묘한 비교를 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이날 말은 TV를 통해 중계가 됐다.

김 회장의 발언을 놓고 포스코는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원자재값도 올라 글로벌 회사들 모두 철강 제품 가격을 올렸을 뿐 포스코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발언으로 촉발된 포스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감정은 11년 만에 중기중앙회에서 한 김 회장과 장 회장의 '약속'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김 회장과 장 회장은 55년생 동갑니다.

중기중앙회와 포스코는 2008년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QSS 혁신활동 컨설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개편, ESG·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포스코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도 김 회장은 "포스코는 그간 대기업 동반성장을 선도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하지만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값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계와 마찰을 빚는 등 상생이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장인화 회장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인화 회장은 "11년 만에 (포스코 회장) 방문했다는 것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장 회장은 "모든 (경제의)터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잘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인사하러 온 자리이지만 협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성과를 내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상반기 주요 수출지역 9곳 중 6곳서 '증가'

산업부 "고른 수출 성장세 이어질 것"
수출액 3348억 달러 '역대 2위' 기록

올해 상반기 9개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주요 수출지역 9곳 가운데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29%)·일반기계(+30%)·반도체(+

184%) 수출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3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대아세안 수출은 7.8% 증가한 555억달러로, 반도체(+25%)·디스플레이(+4%)·무선통신기기(+19%)·컴퓨터(+37%) 등 정보통신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제품(+15%)·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보였다.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15%),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에 힘입어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8.1% 증가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2조 '61% 쉼'

▶▶ 1면 '반도체 끌고, 전자 밀고...'서 계속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부문의 업황 회복마저 지연돼 영업이익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가전 판매 효자노릇...부품사 수혜

가전의 경우 LG전자의 제품 판매 증가로 LG디스플레이 등 부품사들도 수혜를 입었다. LG전자의 잠정 실적은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는 지난 5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9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력 사업인 가전의 판매 상승은 물론 B2B(기업간거래) 사업 성장과

전장(자동차 전자장치), TV용 '웹OS' 등 신성장 동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사업이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적용한 '휘센 스탠드 에어컨'의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LG전자는 '스마트팩토리' 사업 본격화에 따른 매출 증가로 2개 분기 연속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

LG이노텍은 올 2분기에 매출 4조 5553억원, 영업이익 15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6%, 영업이익은 726.2% 증가했다. 오는 31일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기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2조3821억원, 영업이익은 2.1% 늘어난 2093억원으로 추정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행동하는 혁신가... 대규모 M&A 등 '글로벌 롯데' 고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혼란한 국제 정세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기업들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불확실한 요인 속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격호 명예회장 '현장경영' 계승
일진머티리얼즈 등 M&A 진두지휘
혁신 통한 기업가치 향상 집중

◆ 말보다 행동...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그룹 성장 도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955년 2월 14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977년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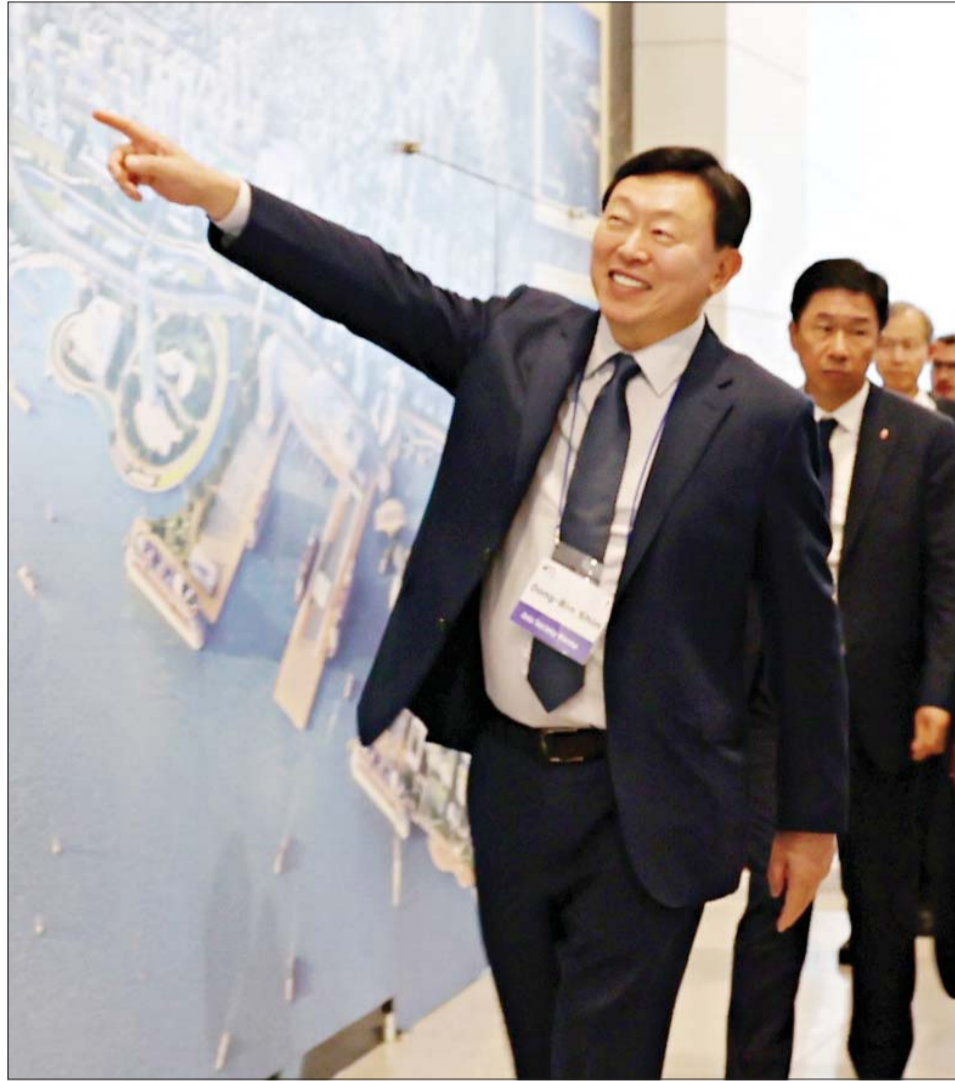
신 회장은 학위 취득 후 다양한 기업 환경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올렸다. 1988년까지 약 7년 간 일본 노무라 증권 런던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 롯데상사를 거쳐 호남석유화학에 상무로 취임했다.

이후 19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을 지내다 2년만에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르면서 사실상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정책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케이피케미칼, 한화마트,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등을 인수하며 롯데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언론 앞에 자주 나서지 않아 조용한 성격으로 평가받아 왔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조용하고 치밀한 ‘컨설턴트’ 타입의 경영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라며 “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 수치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경영전략을 짠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잔잔한 품속에는 사업 성공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신 회장은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회사 성장을 이끌었다. 신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은 롯데그룹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과정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성장 가능성을 본 분야라면 주저하지 않은 것.

특히 신 회장은 2010년 수십 차례 인수합병을 진행해 롯데그룹을 재계서열 5위로 성장시켰다.

2021년에는 롯데쇼핑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와 공동으로 국내 휴먼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을 인수했다. 롯데쇼핑이 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이후 2022년에는 국내 애플의 구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1위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지분의 53.3%를 약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롯데케미칼이 전기차 소재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나온 공격적인 인수합병 행보였다.

그동안 롯데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다.

2022년 5월에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콧의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생산공장을 2000억 원에 인수했다.

◆ '직접 보고 확인한다'...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현장 경영 정신

“아버지(고 신격호 명예회장)로부터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보라’, ‘보고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신 회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물려받은 ‘현장경영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9일 2024 하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경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뒤 나흘 만에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캠퍼스 착공식, EVSIS 스마트팩토리 청주 신공장 방문, 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그랜드 오픈행사 등에 참석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높이기에도 속력을 낸다. 신 회장은 그 비법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2024 하반기 롯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도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에서의 안정적 수익 창출 ▲미래성장을 위

한 고부가 사업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 회장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의 저서 ‘혁신자의 딜레마’를 인용하며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선도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기존 사업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AI·IoT 등 신성장동력 발굴

신 회장이 제시하는 혁신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 노력과 맞닿아 있다.

신성장 동력의 일환 중 하나로 주목되는 것은 스타트업계 지원이다.

롯데그룹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2024 롯데 인베스트먼트 쇼케이스’를 마련했다.

해당 쇼케이스는 롯데 경영진이 유망 스타트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들과 신규 사업을 도모하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다.

해당 행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물인터넷(IoT) 기반 초소형 점포,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6곳이 참여했다.

신 회장은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성장 동력을 위한 행보로 인공지능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함께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며 창의, 혁신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

스타트업 지원 등 성장동력 발굴 바이오·이차전지 신사업 도전 그룹 지속가능성장 토대 마련

실제 신 회장은 지난 3월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AI(인공지능)+X 시대를 준비하는 롯데’를 주제로 열린 ‘2024 롯데 CEO AI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AI+X는 커머스, 디자인, 제품 개발,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 회장의 이같은 진취적인 경영활동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으로부터 이어 왔다는 평가다. 신 명예회장의 혁신과 현장 경영에 이어 신 회장의 강력한 실행력이 지금의 ‘대’ 롯데가 국내 기업 중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다.

/최빛나·안재선 기자 vitna@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0년 11월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을 방문해 배기가스 정화용 자동차 세라믹 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 추도 행사에서 헌화하고 있다. /롯데그룹

“취소해도 환불 대기”... 고객센터 먹통, 상담채팅 대기만 900명

>> 1면 '유통·여행사...'서 계속

은행권, 선정산 대출 잠정 중단
항공권·티몬 캐시 등 환불 막혀
고객센터·모바일상담 연결 불가
재무상태 불안에 회복 불가능 전망

◆은행권까지 손절?... 선정산대출 실행 잠정 중단

이런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은행권은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커머스 분야는 정산까지 최대 9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은행권에서 이용한다.

은행권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했다는 건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에만 국한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3일 티몬과 위메프가 입장문을 통해 신규 정산 시스템을 8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기척을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뉴스시스

월 중 도입하겠다는 주장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티몬 측은 “일부 판매자가 판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소비자도 구매를 줄이면서 티몬의 상품 거래에 여파가 미쳤다”고 말했다.

티몬은 이에 앞서 판매자들에게는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고객센터 ‘먹통’... 소비자 불만 폭발
이같은 사태가 지속되자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여행 상품을 고액으로 결제해 불안해서 무작정 취소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취소했는데 결제 계좌 환불 대기라고 뜬다” “당장 내일인데 항공권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또 이 같은 소비자들의 항의에 대응하지 못하는 티몬 고객센터의 불만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티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 연결이 안된다. 모바일 상담 채팅은 대기 고객 900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사태가 보름이나 이어졌는데 CS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모든 피해는 왜 소비자가 봐야 하나”고 울분을 터트렸다.

선불충전금 ‘티몬캐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앞서 티몬은 상품권과 함께 티몬캐시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NHN이 티몬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을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티몬 판매자들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티몬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복 불가능할 것”... 재무상태 불안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금 정산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프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1025억원이다. 2019년부터 5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티몬도 마찬가지다.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152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 보고서는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증권가는 전년 대비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IBK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은 “대금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및 소비자들의 신뢰도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상품군은 여행서비스로, 최근 온라인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쿠팡 온라인쇼핑업체 성장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점유율 하락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자 구영배 쿠팡그룹 대표가 긴급 귀국해 지난 18일 티몬·위메프 대표와 임원진을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그룹 구영배 회장이 긴급 귀국했음에도 아직까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사태의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금 정산지연 민사상 채무불이행”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질의
“공정거래법 직접 의율 어려워”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공정위는 해당 사태를 공정거래법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관련 질의에 이처럼 대답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골자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해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쿠팡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티몬·위메프의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이 철수한 가운데, 여행사들의 피해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금융권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여파가 더욱 커지는 상태다.

/최빛나 기자

2024 합천바캉스축제

개막식 8.2 (금) 19:30

2024. 8. 2 (금) - 8. 6 (화) 정양레포츠공원 일원

주최 합천군 주관 삼남해협합천관광협의회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금도·약정도·결합도 자유롭게

통신을. 나답게.

KB리브모바일



LiivM 고객 만족도 3년(6회) 연속 1위

2024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MVNO 부문), 컨슈머사이트

KB리브모바일 모델: aespa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Liiv m 챌린지

틀에 박힌 건 싫으니까 M챌린지

- 기간: 24. 06. 20(목) ~ 24. 08. 31(토)
 - 대상: 이벤트 기간 중 KB Liiv M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4세 이상 개인고객 [응모필수]
 - 혜택: 일정 미션 달성 시 [3만 KB포인트]
- 모든 미션 달성 고객 대상 [에스파 포토카드+틴케이스+담요] 제공/400명 추첨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Live My Life 챌린지

- 기간: 24. 06. 20(목) ~ 24. 07. 31(수)
- 대상: 만 14세 이상 KB스타뱅킹 회원
- 혜택: 총 상금 240만원 상당의 경품과 KB리브모바일 공식 SNS계정 및 디지털매체광고에 영상 노출 기회!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m.liivm.com)를 통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리브모바일 고객센터(1522-99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060호(2024.06.24), 유효기간 2024.06.24~2024.09.30까지



KB 국민은행

‘新권력’ 韓, 尹에 ‘화합·단결, 대화·타협 정치’ 포부 전달

현충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 주장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우려도 “집권여당 강점, 시너지 낼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차 특검을 추천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시

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

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내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차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3일 여의도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 10여명과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장동혁·진중오 의원과 송석준(3선) 의원, 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재선) 의원, 김소희·김위상·유용원·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대표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방통위 2인체제 운영’ 野 책임 vs 대통령실 추천 없어

(輿)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輿 “野, 2명 추천했다면 5인체제 완성” 野 “尹, 野 추천 위원 한 명도 임명 안 해”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

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 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 공청회·청문회 추진

輿 “韓 당 대표 업무 첫날부터 특검법 올리는 법사위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

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 인양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

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리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계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태홍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당신께만 알려드려요”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

 **신한 Premier**

신한 프리미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규제 비웃듯 주담대 눈덩이... 당국, 정책금융 규모 손보나

가계대출 한 달 새 3.6조 ↑
부동산 거래 심리 살아나자
주담대 잔액만 3.8조 늘어
DRS 규제 내실화 효과 미미



부동산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뉴스시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으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세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해 가계부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정책금융 상품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지난달(708조5723억원) 대비 3조6118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555조9517억원)은 지난달(552조1526억원) 대비 3조7991억원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되살아났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담대 급증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겹쳤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제도 시행으로 가계부채 고삐를 당겼지만 효과는 없었

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했다. 월별 증가폭은 ▲1월 4조4329억원 ▲2월 2조7713억원 ▲3월 -4494억원 ▲4월 4조571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3월을 제외하곤 매월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DSR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가계대출은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또 다시 DSR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가계부채는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

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까지 DSR에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상품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수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DSR 내실화 강화만 외치는 것이 아닌 가계부채 감소라는 결과를 증명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코인거래소 보험에 항공지연 보장까지... 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사

가상자산법 시행에 준비금 적립 필요
삼성화재 업계 첫 가상자산보험 선포
보험개발원 제공 참조순보험료율 바탕
8~9월 항공기 지연 보험도 선보일 듯

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오는 19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소멸성이므로 보험료가 아깝거나 준비금을 쌓을 수 있는 거래소는 보험가입을 주저하겠지만 준비금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보험을 선보였고 지난 12일 코인마켓 거래소 중 '비블록'을 1

호 가입자로 받았다. 보장개시일은 19일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타 보험사 대비 가상자산보험 시장에 대한 시장성을 확인했다"며 "의무보험인 가상자산보험에 대해 상품·영업 관련 시장 준비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역시 지난 16일 삼성화재에 이어 두번째로 가상자산보험을 출시했고 타 손보사들도 속속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자산보험에 대해 업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에 앞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출을 위한 요율 산정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예

상하기 힘든 위험률이 있으므로 코리안리에서 요율 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재보험사의 출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요율을 얼마만큼 책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연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보험에 이어 손보사들은 오는 8~9월 국내 1호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2일 국내 첫 지수형 보험인 '항공기 지연 보험' 참조순보험료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지표를 사전에 정해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는 과정이 번거로웠다. 가입자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

사는 이를 재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이 도입되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항공기 지연 정보가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 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수형 보험에 대해 특약 형태로 개발이 이뤄져 순차적으로 상품에 탑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80% 육박... 집중호우에 악화 우려

4대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79.5%
긴 장마에 침수 피해車 늘어 '비상'
손해율 상승 땀 보험료 상승 불가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서울 서초구 잠수교가 전면통제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에서 관계자들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집계됐다. 1년 전(77.2%)과 비교해 2.3%포인트(p) 올랐다. 7개 보험사로 확대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1%로 전년 동기

82.1% 등은 손해율 80%를 넘어섰다. DB손해보험이 78.7%로 가장 낮았고 이어 메리츠화재 78.8%, 삼성화재 79.2%, KB손해보험 79.4% 순이었다. 문제는 올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549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19억7400만원이다. 지난해 6~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2395대, 175억원을 올해는 3주만에 벌써 크게 웃돌았다. 업계는 하반기 손해율이 상승하면 향후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형 기자

금융위, 올 2분기 공적자금 72% 회수

지난해 말 대비 0.5%p 증가
예보 배당금으로 2145억 회수

증채권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I 을 조성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자금 II 를 조성했다. 현재 공적자금 II 는 종료된 상태다. 이번 회수된 금액은 금융사 구조조정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1955억원, 한화생명에서 130억원, 우리금융지주에서 6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총 2145억원의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공사의 배당금으로 회수됐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은행 1578억원, 산업은행 1855억원, 수출입은행 330억원 등 총 375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나유리 기자 yu11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약 71.9%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은 5960억원으로, 지난 1997년부터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1.9%로 지난해 말(71.4%)와 비교해 0.5% 포인트(p) 증가했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대신 예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주는 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

효성중공업, 액화수소 생산 임박 충전소 등 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3분기 울산 액화수소 공장 완공
연내 상업 가동... 수요처 확보 관건
광양·진주 등 8개 충전소 개소 예정

효성중공업이 올해 3분기 액화수소 공장 완공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차질 없이 생산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처 확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가스·화학 전문 업체 독일 린데의 액화수소 생산 합작법인(JV) 린데수소에너지는 올해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연내 생산을 들어간다. 해당 공장은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연산 1만 3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회사는 공장 건설에 맞춰 하반기 액화수소 충전소도 완공해 상업운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두산

에너지, SK E&S 등 총 3곳으로 확대됐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으로 대용량·운송에 유리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전 속도가 빨라 같은 시간에 기체 수소 대비 약 4배 이상의 차량에 충전 가능하다. 고압 압축이 필요한 기체 수소와 달리 대기압 수준에서 저장할 수 있어 폭발과 화재 위험도 낮아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

앞서 효성중공업과 린데는 지난 2021년 액화수소 생산법인 린데수소에너지 및 판매법인 효성하이드로젠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수소발전소 완공 계획은 공장 착공 약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린데수소에너지가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담당을 맡고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를 충전소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효성은 국내에 920억원을 들여 액화수소 충전

소 8개소를 구축중으로 하반기에는 광양, 진주 충전소를 완공해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수소에너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혁명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 사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상업 가동을 앞두고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보다 '수요처 확보'다. 액화수소 충전소가 구축되어도 이를 이용할 수소 차량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소액화플랜트와 충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재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분야에 그 적용을 우선해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액화수소 생산 및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투자와 연구를 통해 수소경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왼쪽부터)코야마마나부 렉서스코리아 CEO, 렉서스인터내셔널 오치타타마나부 차프 엔지니어, 렉서스인터내셔널 키타즈미히로야 차프 디자이너가 24일 앤헤이븐에서 열린 'LM 500h' 공개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렉서스, 플래그십 MPV 'LM500h' 선포

시스템 총출력 368마력

렉서스가 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LM 500h'다.

렉서스코리아는 24일 서울 강남구 앤헤이븐에서 렉서스 플래그십 MPV인 LM 500h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으로 업무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렉서스의 마스터피스다.

외관은 렉서스의 디자인의 핵심인 '스핀들 보디(Spindle Body)'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전면부의 심리스(Seamless) 타입 그릴은 스타일리쉬하면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해 준다.

렉서스는 최상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위해 노력했다. GA-K 플랫폼을 기반

으로 뒤틀림 강성 확보하고, 새롭게 개발된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타입과 후륜 트레일링 암 기반 더블 위시본 타입의 서스펜션으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운전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주행 성능은 2.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반으로 가속감과 풍부한 토크감을 자랑한다. 2.4리터 D-4ST 엔진과 e-Axle 전기 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총출력 368마력을 발휘하며, 습식 발진 클러치를 탑재한 6단 자동변속기와 DIRECT4AWD 시스템으로 100:0에서 최대 20:80까지 효과적인 전후륜 토크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렉서스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럭셔리 MPV 차량이 생소할 수 있지만, LM 출시 후 충분한 수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LS전선-LS마린솔루션, 해저 케이블사업 시너지

시공과정 변수 효과적 대응
美·유럽 등 대규모 수주 성과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과 협력하여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저케이블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제품은 현존하는 DC 케이블 중 최고 전압 제품으로, 테넬트(TenneT)사의 2GW(기가와트) 규모 송전망 사업에서 사용된다.

LS전선은 지난해 테넬트와 체결한 2조원대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전세계 케이블업체의 단일 수주금액 중 최대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또한 벨기에 전력회사 엘리아(ELIA)사와 약 28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섬인 프린세스 엘리자베스섬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게 된다. 이 인공섬은 3.5G



LS마린솔루션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LS전선

W급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결되어 전력을 저장하고 분배한다. 오는 2030년 완공되면 본토와 영국, 덴마크 간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허브 역할도 하게 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저케이블 시공과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입지를 자랑하며 LS전선과 협력을 통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2024년 상반기에

매출 520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로, 해상풍력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본격 진행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해상풍력 1단지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해상풍력 시공 사업이 LS마린솔루션의 성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시공은 악천후와 같은 해상상황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필수적이다. LS마린솔루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케이블 시공업체로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LS전선의 수십년 간의 터키 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과 기술력이 해저케이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공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해상풍력용 포설선 '팔로스' 취항

최대 4400t 해저케이블 선적

대한전선이 미래를 향한 담대한 전진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전선은 당진 해저케이블공장이 위치한 아산국가단지 고대부두에서 6200톤급 해저케이블 포설선 '팔로스(PALOS)'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24

일 밝혔다. 팔로스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Cable Laying Vessel) 포설선으로 한번에 최대 4400톤의 해저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다.

팔로스는 설계 단계부터 해저케이블 포설을 위해 건조된 CLV로, 화물 운반이 목적인 바지선을 개조해 만든 CLB(Cable Laying Barge) 대비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팔로스는 일반 선박과 달리 바닥이 평평해 수심에 관계없이 여러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며, 선박위치정밀제어시스템(DP2 : Dynamic Position) 등의 최신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이번 팔로스 취항으로 설계, 생산, 운송, 시공, 시험, 유지보수 등 해저케이블의 전체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차현정 기자

'강인+우아' 쿠페형 SUV... "BMW 답네"



BMW '뉴 X2'

티맵 기반 한국형 내비게이션 탑재

BMW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X2는 우아하고 강렬한 쿠페 디자인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혁신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더해 최신편모델의 진보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땅끝마을 해남까지 왕복 약 800km 구간을 주행하며 X2의 매력을 확인했다. 시승 모델은 '뉴 X2 xDrive20i M Spt'.

첫 인상은 BMW의 강인함을 담고 있다. SUV지만 크로스 오버 스타일의 쿠페 실루엣을 담았으며 후면부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은 BMW SAC 고유의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X2는 1세대보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 전장은 4555mm

로 이전 세대 대비 195mm 길어졌고, 전고도 1590mm로 65mm 높아졌다. 트렁크 적재 공간은 기본 560L며, 뒷좌석을 접으면 1470L까지 확장된다.

운전석 앞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조합한 곡선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깔끔함과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했다.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개발한 TMAP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을 탑재했다.

주행 성능은 빠르고 민첩했다.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자 힘있게 치고 나갔다. BMW 특유의 가속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노면을 단단하게 잡은 듯한 느낌을 주며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뉴 X2에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0.6kg·m를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더블클러치 방식의 7단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가 맞물렸다. 연비는 13.2km/L로 공인 복합연비(10.8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양성운 기자 ysw@



BMW 뉴 X2 주행모습

LG이노텍, 2분기 영업익 1517억 “고성능 제품·원가개선 활동 영향”

계절적 비수기 뚫고 ‘깜짝 실적’
매출 4조5553억 전년비 16.6% ↑
고부가 확대·원가개선 수익성 ↑
하반기 애플 신제품에 수요증가 전망

LG이노텍이 ‘계절적 비수기’를 뚫고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고성능카메라 모듈 등 주력 고객사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내부 원가개선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이 올 2분기에 매출 4조 5553억원, 영업이익 15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 726.2%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도 989억원으로 4천 684.14% 늘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수치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전방 IT 수요가 개선되면서 광학솔루션 및 기관소재 사업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또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와 적극적인 내부 원가개선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LG이노텍 전 사업부가 호실적을 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을 맡고 있는 광학솔루션사업은 고성능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3조6천80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관 사업 담당인 기관소재 사업은 13% 증가한 378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는 15% 올랐다. 스마트폰 전방 수요 개선으로, RF-SIP 등 스마트폰용 반도체 기관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장부품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LG이노텍

2%, 전 분기 대비 1% 증가한 49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장부품사업은 특히 자율주행·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DAS)용 차량통신 부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 LG이노텍은 센싱·통신·조명 모듈 등 전장 핵심부품과 FC-BGA 등 고부가 반도체 기관을 앞세워 사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지환 LG이노텍 CFO(전무)는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과 생산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 사업을 강화해 수익 기반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싱·통신·조명 모듈 등 전장 핵심부품,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와 같은 고부가반도체 기관을 앞세워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는 LG이노텍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 호조로 LG이노텍 올해 연간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이폰 16 시리즈(9월 출시 예정)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폰 교체 수요를 추가 반영하면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조16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39.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최준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고객사의 중국 내 대규모 프로모션 효과 및 신규 아이폰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촉진 영향으로 2분기 스마트폰 롱테일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2분기 환율 효과로 원화 수익성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도 하반기에는 LG이노텍의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오는 9월 AI 인텔리전스를 채택한 아이폰16을 내놓으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UH/HH-60’ 성능개량 추진

KAI와 판보로 에어쇼서 MOU

한화시스템이 23일(현지시간) 영국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UH/HH-60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배타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체결식에는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와 강구영 KAI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육군과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지속적 운용을 목적으로 항공전자시스템 디지털화 및 통합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KAI는 향후 UH/HH-60 성능개량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며, 주관업체로 항공기의 체계 개발·통합을 주도한다.

한화시스템은 참여업체로 항공전자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KAI 강구영 사장(왼쪽),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가 판보로에어쇼에서 UH·HH60 성능개량사업을 위한 MOU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양사는 이번 성능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수리온 성능개량과 수출, 소형무장헬기(LAH) 수출, 차세대기 동헬기 개발 등 많은 헬기 사업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이라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수리온, LAH 등 국산 헬기의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기아 EV3 모델에 차량용 게임 제공

웹 형태 기반 ‘게임포탈’ 상용화

LG유플러스가 차량용 게임 시장을 개척한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개발한 웹 기반 차량용 게임 서비스 ‘게임포탈’이 기아 전기차 모델 더 기아 EV3를 통해 처음 상용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개발한 게임포탈은 차량용 게임 서비스로, 국내 브랜드 차량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와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된 게임포탈은 웹 형태를 기반으로 제작돼 개별 게임 앱을 다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명칭으로 더

기아 EV3에 적용된 게임포탈은 모바일 게임 전문기업 ‘모비릭스’의 인기 게임인 ‘타워디펜스킹’, ‘벽돌깨기퀘스트’, ‘마블미션’ 등을 비롯해 총 8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아 커넥트 스토어’ 웹페이지에서 아케이드 게임의 디지털 사양을 구매하면 된다. 안전을 위해 운행중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잠깐 정차중이거나 충전을 위해 대기할 때는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더 기아 EV3 자체에 게임포탈을 적용해 스마트폰 등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차량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구남영 기자

삼성·LG, 친환경·고효율 경쟁력 입증

최고 기업상 ‘올해의 녹색상품’ 수상
TV·냉장고·세탁기 등 15개 제품 선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 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제품의 환경 개선 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전국 20여개 소비자 및 환경 단체와 400여명의 소비자가 평가단으로 참여해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한다.

녹색마스터피스상은 ‘올해의 녹색상품’을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 자격이 부여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4년, 5년 연속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녹색마스터피스상을 4년 연속 수상해 녹색 상품 개발과 녹색 경영 활동을 지속 인정받았다. 지난해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 /삼성전자

에 이어 TV, 생활가전 등 전 분야의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제품 중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콤팩트 ▲비스포크 AI 스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 ▲비스포크 AI 무풍갤러리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AI 인덕션 ▲비스포크 AI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비스포크 큐커 오븐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비스포크 큐커 멀티

▲비스포크 후드 에어 등 12개 제품이 선정됐다.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은 ▲네오 QLED 8K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6 ▲스마트 사이니지 Q 시리즈로 3개 제품이 선정돼 삼성전자 제품 총 15개가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LG전자도 생활가전 분야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뽑혔다. 이를 통해 최고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도 5년 연속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으로는 휘센 듀얼쿨 벽걸이 에어컨과 디오스 오브 제컬렉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퓨리케어 정수기 ▲디오스 광파오븐 ▲스타일러 ▲디오스 식기세척기 ▲디오스 김치냉장고 ▲휘센 뷰에어컨 ▲디오스 컨버터블 냉장고 ▲트롬 위시타워 ▲트롬 위시콤팩트 ▲통돌이 세탁기 ▲디오스 인덕션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가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G모빌리티 액티언 “더 넓고 럭셔리하게”

쿠페형 SUV 실내인테리어 공개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다음달 출시되는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액티언’의 실내 인테리어를 24일 공개했다.

액티언은 KGM의 디자인 철학인 ‘강인함에 따른 추진’을 바탕으로 ‘스타일리시언 다이내믹’을 내세운 외관 스타일에

맞춰 ‘슬림 앤 와이드’로 실내 인테리어 콘셉트를 정했다. 수평형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이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단말기(AVNT)가 탑재됐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

카카오가 오는 26일(현지시간)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를 포털 다음에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서비스가 더해져 이용자들이 함께 응원하며 올림픽을 한층 더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다. 특집페이지는 PC 다음 첫 화면 배너와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서 접속 가능하다. /이혜민 기자

KT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

KT가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과 관련해 ISO/SAE 21434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CMS)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이번 사이버 글로벌 제품 안전 인증 기관인 UL설루션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

ONOFF

2024.7월

FF-247 IV | LADY IRON(LP423)



ONOFF
LADY IRON
(LP423)



비가 와도 식지 않는 열정을 위해
우산 증정 이벤트

(색상 랜덤 증정)



*행사 기간: 7월 7일 ~ 8월 11일, FF-247 IV | LADY(LP423) 아이언 품목 구매 고객 한정(사은품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

*온오프 홈페이지(onooffgolf.co.kr)정품 등록 필수(회원가입시 등록된 주소로 2주일 이내 상품 발송 -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JULY PROMOTION

ONOFF GOLF

한양증권, 안정적 성장세에도 매각행... “대학·의료원 재정 악화”

대학 등록금 동결에 재정운영 어려워
의료원 노후화·전공의 파업 겹쳐

노조 “최대주주 한양학원 문제
책임 있게 매각 관련 해결 요구”

‘알짜배기’ 한양증권이 설립 68년 만에 공개 매물로 나와 다양한 인수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만큼 한양학원의 어려움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한양증권 노동조합 측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전날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한양학원은 지난 15일, 19일에도 진행 상황을 공시해왔다. 지난 9일 한양학원은 이사회에서 한양증권 주식 151만 4025주 매각을 결정했다. 143만 7590주(11.29%)를 주당 1만 803원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7만 6435주(14.56%) 전체를 1만 3483원에 매각한다. 매각 후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기존 16.29%에서 4.99%로 줄어든다.

한양증권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KCGI, 우리투자증권, OK금융그룹 등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한양증권

다양한 인수 후보군이 언급됐다. 실적 상승세를 유지해 온 알짜 증권사가 매물로 나온 만큼 시장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KCGI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으나, 이외에도 3~4군데에서 입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결정에 대해 한양증권 노조는 강력한 반대의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양증권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열의와 희생으로 68년간 이어온 우리 회사가 오로지 최대주주 한양학원의 문제로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

아 매각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회사와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책임에서 기인한 만큼 우리는 한양학원이 책임 있게 매각 관련 문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의 미래와 장기 성장, 고용 안정 등 근로조건 유지 발전이 담보될 확실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처분배경에는 한양학원의 재정 악화가 두드러져 보인다. 학원 측은 21일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

을 통해 “대학의 경우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원도 기존 병원시설 노후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의료원 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증권 노조 측에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08억)보다 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134억원으로 23% 뛰었다.

실제로 한양증권 임직원 대부분이 노조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양증권에 근무 중인 A씨는 “노조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투명한 처리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한양증권 직원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양증권은 임재택 대표이사의 취임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안착시켰다. 이전까지 한양증권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채권매매와 파생상품 등 자기매매부문에 치중해 있었으나, 임 대표

는 부임 직후 사업구조 재편을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진입하면서 창립 62년만에 부동산금융본부를 신설했다. 이후 부동산 PF 인력뿐만 아니라 FICC(채권·외환·상품 등) 사업에서의 우수 인력들을 다수 영입했다.

임 대표가 부임한 이후 한양증권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8년 1분기 당시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2699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4964억원으로 84% 성장했다. 증자나 자본증권 발행 등 별도의 자본증식 없이 이익금으로 이뤄낸 결과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1.7%에서 10.84%로 6배 이상 상승했다. 임 대표는 지난 3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철저한 리스크관리 역시 한양증권의 강점으로 꼽힌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PF 우발부채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양증권은 PF 우발부채 제로(0)를 자랑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광풍이 불었을 당시, 한양증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PF 주선 업무에 역량을 쏟았다”며 “자기자본을 투자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해리스 수혜’ 의료용 대마株 강세 캐즘·고금리에 배터리株는 ‘글썸’

화일약품, 전일비 19.21% 급등
‘트럼프 트레이드’ HD현대건설기계
전일비 5.05% 하락세로 제동 걸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후 그 바통을 이어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용 대마주가 강세를 띤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화일약품은 전일보다 19.21% (308원) 급등해 191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일약품의 거래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사퇴를 발표한 22일(현지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단적으로 한 달 전인 6월 24일 화일약품의 거래량은 17만 8180주에 불과했지만, 이날 거래량은 8285만 9157주를 기록했다.

화일약품의 주가 상승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한 발언과 관련이 깊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며 “마리화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말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연방정부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화일약품은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는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센트럴 고등학교 행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AP/뉴스시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첫 대마 성분 화장품을 출시한 한국비엔씨는 전일보다 7.40% (470원) 오른 6820원에, 의료용 대마 재배와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바이오는 전일 대비 0.37% (15원) 오른 4040원에 장을 마쳤다.

100일 남짓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일리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유권자 4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

통령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론조사를 펼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6%p 우위를 점했지만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자 그 폭이 좁혀진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 포인트 앞지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제동이 걸리는지 지켜보는 모양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오름세를 보였던 HD현대건설기계는 2영업일 동안 하락하며 24일 종가는 전일 대비 5.05% 하락 6만 39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배터리주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전기차 업체들이 겪는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글로벌 고금리 여건으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에도 주가 부진은 계속되는 추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한 우려에 많이 피해를 본 그린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재생에너지 관련 주 중 단기 실적 모멘텀이 유호한 업체들은 저점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은 업황과 실적이 예상 대비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운용, ‘주택도시기금 전담’ 10주년

유일하게 3회 연속 선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7월 제1기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7월 제2기, 2022년 7월 제3기 연속 선정됐다.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체계 최초 도입 이래 3회 연속 선정된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39%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운용역량과 경

쟁력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주택도시기금 내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해 전담운용체계(OCIO)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38.87%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RISE ETF로 ‘워런 버핏’ 투자 따라잡는다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ETF

K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할 시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보협사 겸 투자목적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고평가 이슈로 조정 받는 빅테크 기업 대비 다양한 사업영역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녔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올해 2월 상장된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ETF’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를 ETF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Solactive Berkshire Portfolio Top 10 Index’를 추종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BRK.b)에 최대 27.5%를 투자하고 나머지 약 72.5% 비중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을 제외하면 금융(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비재(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즈), 에너지(셰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다양한 산업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한 덕분에 운용 수익률도 양호하다. 최근 1개월 6.29%, 3개월 16.24%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변압기 시장 호황... 업계, 증산·공장 확보 등 '노 젓는다'

2031년 시장규모 4800억弗 예상
HD현대일렉트릭 '깜짝실적' 기록
2분기 매출 9169억, 영업이익 2100억
美 초고압변압기 공장 9월 마무리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세계적인 수요확대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한창 진행돼 변압기 업체들이 호재를 맞이했다. 업계는 꾸준한 증산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시장 수요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전방 수요도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수주 또한 장기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변압기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2억 6030억 달러에서 2031년까지 4800억 511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장과 전기화 추세에 따라 전력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압기 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분주하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나 가정에 보낼 때 그에 맞게 전압을 바꿔 주는 기기다. AI 데이터센터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초고압 변압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들은 미국발 초고압 변압

기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변압기 업체의 호실적을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예상을 크게 웃돌아 이목을 끌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169억원, 영업이익 2100원을 기록했

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7%, 257.1%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분사 이후 최대 규모다. 수주 규모도 크게 늘어 2분기 수주액은 8억 8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23억 1800만달러를 기록, 연간 수주 목표 37억 4,300만달러의 61.9%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2억 5200만달러를 채우며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실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LS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2조 8000억원 규모다.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만드는 효성중공업도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북미, 유럽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공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작업을 오는 9월 마무리할 예정

이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 공장을 2026년 증설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 진행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 인프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될 경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전력공급 부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중장기 실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악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도 산업의 흐름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변압기 시장의 호황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대선 진행 상황 외에도 다양한 상황 추이를 지속 관찰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 증가로 장기간 변압기 업계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ool.co.kr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업체 4.6% 늘었다

2022년 취급업체 3만8829곳서
총 3만2910종 취급... 4.1% 증가

화학물질 종류와 이를 취급하는 업체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8829개 사업장에서 3만 291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4.6%(1722개), 화학물질 종류는 4.1%(1310종) 증가하면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998년부터 4년마다 조사를 시작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014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

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 기준량을 초과해 취급하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2022년 1~12월 진행됐다.

화학물질 취급량을 형태별로 나눠보면 ▲제조량 5억7709만톤(t) ▲수입량 3억7242만 t ▲사용량 11억6087만 t ▲수출량 1억2924만 t으로 집계됐다.

4차 조사와 비교하면 제조량은 0.6%(348만t), 수입량은 6.2%(2,178만t), 수출량은 3.3%(414만t) 증가했다. 사용량의 경우 28.4%(4억6014만t) 감소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3.7%를 차지했다. 이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해화학물질 제조량은 7000만t, 수입량은 1340만t, 사용량은 6640만t, 수출량 1940만t으로 총 1억6920만t이 취급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제조량, 사용량, 수출량은 각 10.5%, 27%, 9.8% 감소했고 수입량은 6.4% 증가했다.

2020년에 대비 제조량이 증가한 물질은 철슬래그(440만t), 알루미늄(280만t), 납사(270만t), 휘발유(260만t) 등이다. 철(-960만t), 산소(-670만t), 과산화수소(-610만t), 산화칼슘(-370만t)은 2년 전보다 제조량이 줄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규제특례 승인기업 대상 175억 펀드 결성

산업부, 로봇·헬스케어 등 중심 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175억원을 최초 결성하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분야 중심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원을 달성했고, 7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175억원까지 확대됐다.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www.intervalup.com) 또는 이메일(contact@intervalup.com)로 투자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빅픽처스, 아르고스디자인, 아이베브, 엘토브, 이온어스, 플레토 등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다. 펀드 운용사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체 임직원의 70% 부울경 동남권 연구

에어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에어부산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에어부산이 지역 내 알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의 70%가 부·울·경 동남권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중 부·울·경 동남권 지역을 연구로 한 직원 비율이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한다. 동남권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약 20% 중반대의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 권역별 인원이 각 1% 수준이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이전의 부담을 덜고 연구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동남권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앞장서 왔다. /박대성 기자 iunm@s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교육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지역	주요내용
바이오	충북오송	·산업계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 cGMP 인증 및 생산 역량강화 교육
미래차	대구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모터 설계·검증 및 응용기술 교육
	광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자율차 소부장 디지털 전환 교육
반도체	부산	·전력반도체 소자설계·제조공정·모듈 시험분석 원스톱 교육
	경기안성	·반도체 연마/세정 공정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소부장 특화단지서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산업부, 재직자 교육사업 공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27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25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사업은 오송(바이오),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공공연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오송단지의 경우 미국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을, 대구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설계·검증 관련 내용을, 부산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 25일~8월 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시장 첫 발

중소·현지 전력대학교와 MOU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전력대학교인 IT PLN, 국내 에너지 혁신기업 타이드 코리아 및 차지인과 함께 '전기차충전 수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참여사들과 협력해 전기차충전 자동결제 시스템 개발과 현지 맞춤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인니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의 브랜드파워와 중소기업 우수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분야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의 현지 사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MOU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등 정부 인사와 국영전력회사(PLN) 등 전력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저출산’ 해결 나선 韓 기업들, 출산 축하금·장학금 등 주목

국내 기업들 출산·육아 지원책 마련 현대차, 첫째~셋째이상 지원금 확대 포스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초저출산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확대, 승합차 선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동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선보이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2022년 0.78명 보다 0.06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8월 전주공장에 근무 중인 8자녀 직원 가족을 방문하고 승합차 ‘스타리아’를 비롯한 4200만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

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경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과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감소 등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 직원들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산 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

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4세부터 5세까지 자녀에게 2년 동안 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결혼부터 육아까지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직원이 결혼을 하면 결혼 축하금을 200만원 지원하고 신혼여행지원금을 200

만원 지원한다.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부터는 500만원을 준다. 이에 더해, 아기와 첫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추가로 선물한다.

특히 포스코는 2020년부터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당 최대 4년 사용할 수 있고, 단축근무와 연계해서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자녀 기준 8000만원, 3자녀 기준 1억2000만원, 4자녀 이상 1억60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그 결과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는 2022년 1.51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에도 1.55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도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타이어뱅크의 출산장려 캠페인은 첫째~셋째 자녀 출산 부모에게 타이어 구매 가격의 50% 할인 혜택,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지

정 품목에 한해 타이어를 무상 제공하는 대국민 출산 가정 지원 프로젝트다. 출산장려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모바일 쿠폰(50% 할인권 또는 100% 무료교환권)을 발급받아 전국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 내부 직원들의 출산 독려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세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감소 등 대한민국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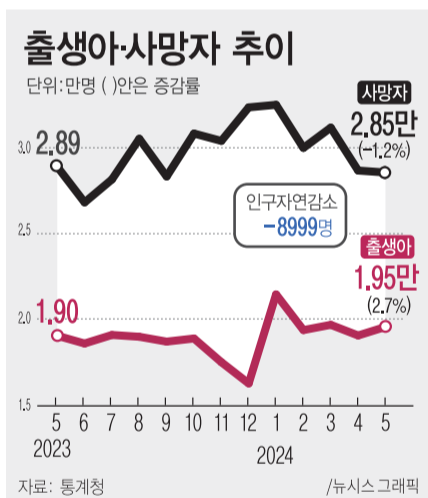
‘8년여 만에’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증가

통계청, 2024년 5월 인구동향 출생아 2.7% ↑... 혼인증가·기저효과 혼인 2만건 돌파... 전년비 21.6% ↑

국내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2개월째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완화한 2022~2023년 사이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7%(514명) 증가했다. 올해 4월 1만9049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2015년 10~11월 이후 8년6개월 사이 첫 사례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며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2022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늘어난 효과가 첫째로 이어지며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늘면서 2~3년차 신혼부부의 출



산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4월 출생아 수의 큰 폭 감소(-12.5%) 등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대비 1.2%(339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6명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인구는 여전히 자연감소를 이어 갔다. 5월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99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로 따지면 전국에서 총 5만176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5개월째 지속됐다.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6%(3712건) 증가했다. 지난 4월에도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24.6%(4565건) 늘어났다. 1~5월 누계 혼인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대구에서 4092건으로 19.6% 증가해 가장 높았고 대전이 2786건으로 같은기간 17.2%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8건으로 전년대비 0.8건 늘었다.

5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1년 전보다 5.6%(470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줄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공급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이달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초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NC 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까지 늘렸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채납, 연체, 휴·폐업, 용자 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진공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571억 달러... 전년비 4.4% ↑

중기부, 1~6월 수출 동향 발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71억 달러(약 79조1863억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효자 품목은 화장품이었고, 수출 1위국으로 미국이 올라섰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6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6%)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별로는 1월 증가폭이 18.4%(14억40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4월이 10.1%(9억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949개) 늘어난 7만7078개사로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수출 규모 기준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6만7801개사로 88.0%를 차지했고, 5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73개사로 조사됐다. 10대 수출 품목 중 8개는 전년 대비 확대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화장품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 화장품은 전년대비 30.8% 증가한 33억1000만 달러로 상반기 최고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K뷰티의 수요 급증 및 미국, 중국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것이 상반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bada@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2~23 비전 어워드’에서 2022~2023년에 시행한 주요 ESG 경영 내용과 성과를 담은 ESG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간, ESG보고서 부문 ‘대상(Platinum)’을 수상하는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사업에 참여하

는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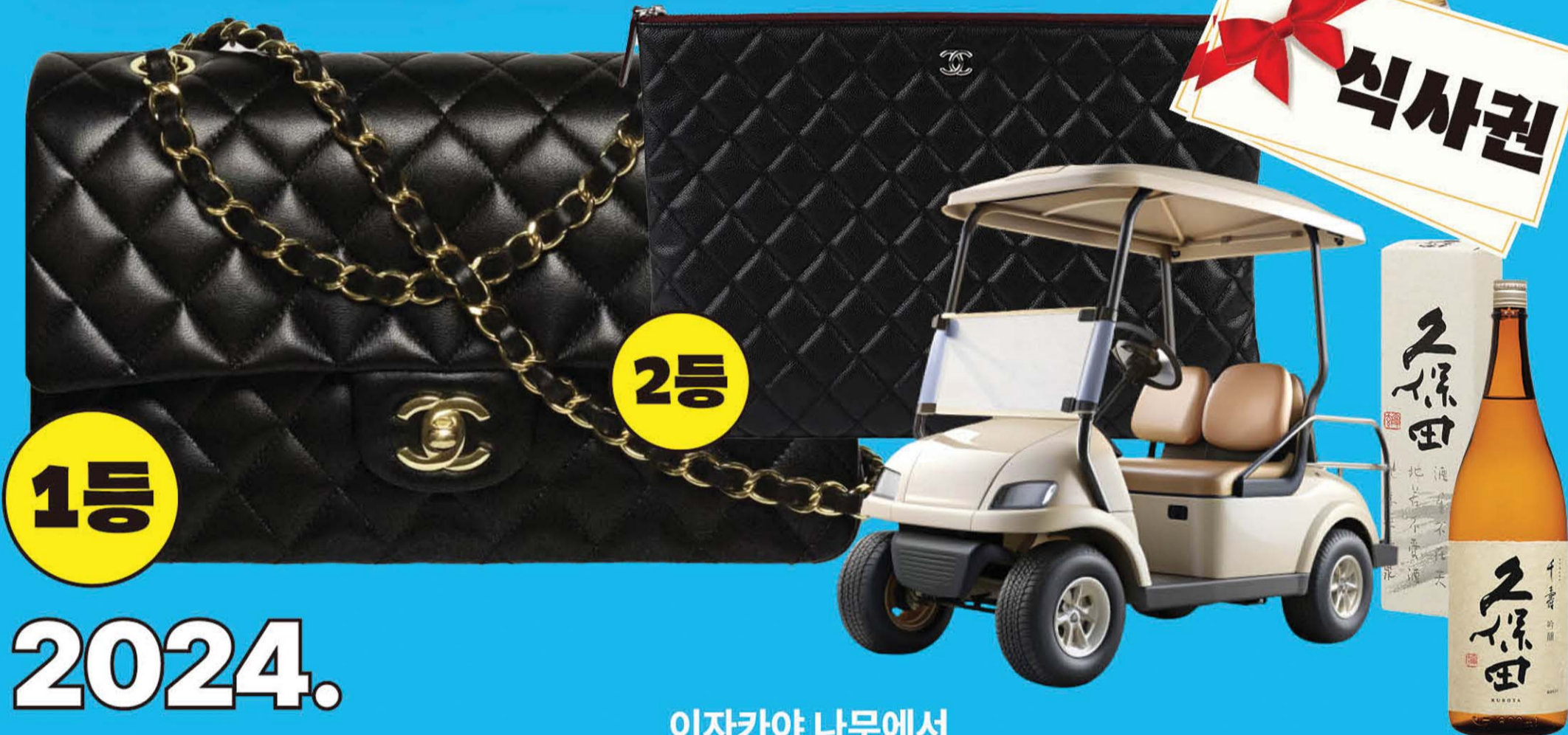
특히, ESG 지표 준수가 우수한 협력사는 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ITA, KOIC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1등

2등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광고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중장년 재취업 종합서비스 강화”

고용부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논의 이정식 장관, 중장년 훈련생 격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개소 확대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 폴리텍 훈련인원 1만명까지 늘릴 것

정부는 중장년층이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폴리텍의 훈련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규모를 현재 25개소,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 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

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발제에서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며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년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 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2032년 기준 약 8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식품부, 첨단기술 새싹기업 창업박람회

대기업·투자사 상생협업 기회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 및 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를 비롯해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 기업홍보(IR), 민간·국유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대형유통채널 전문가(MD) 품평회 등이 열린다. 또 해외진출 세미나 등 해외진출·투자·기술 분야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25일 예정된 개막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부스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



엑스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뿐 아니라 투자·판로·기술·해외진출·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특화된 농식품 첨단기술 박람회로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엔 총 280여 곳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그린바이오와 애그·푸드 테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식품 창업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접수

채권발행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녹색자금 조달·이자비용 지원 사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녹색자금 조달과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나해부터 진행된 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137

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상반기 동안 74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억 6000만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송미령 “매일 농축산물 점검회의 주재할 것”

(농식품부 장관)

정부비축 배추 보존상태·물량 점검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중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4일 경기 이전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비축 배추의 보존상태·물량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판을 설치해 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제가(장관) 매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t) 규모의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비축기지 점검 결과, 현재 보관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경기 이전에 자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를 찾아 배추 보존 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오는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향후 산지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현재까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배면적이 감소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도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의 수확작업 등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공급량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하량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비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만132ha로 지난해(6만8567ha)와 평년(3만3876ha)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과 생육이 부진한 오이 등의 일부 채소류 가격은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직업상담 업무에 생성형 AI 활용 ‘긍정적’

고용정보원,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공공 및 민간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들을 탐색하고, 직업상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활용 사례 44건을 담았다.

텔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상담 및 전직 지원 현장 전문가들은 직업상담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상담의 대표 직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능력단위) 40개 중 17개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재부, 주요국 美 대선 대응상황 공유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불확실성·지정학적 위험 확대 우려

김범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미 대선 관련 정책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는 “재경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교의 첨병인 해

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각국의 신속한 동향 보고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상황이 급변한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 및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흐름, 기업의 탈중국 동향과 전망, 일본의 슈퍼 엔저와 임금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재경관은 주요국의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 및 정책 제언을 향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I가 아이스크림·떡볶이 등 신제품 개발, 리뷰 분석까지

식품업계 AI 활용법

식품업계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도와 수요를 파악해 신제품 개발에 나서거나 하면,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 걸쳐 AI를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 기호도 반영 신제품 개발

SPC의 베스킨라빈스는 신제품 개발에 AI를 도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스킨라빈스 지난 15일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니(Gemini)'를 활용해 개발한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를 출시했다. 여름 시즌 인기 검색 키워드를 반영한 구글플레이 로고 컬러의 비주얼과 원료 구성을 제안받아 베스킨라빈스만의 방식으로 조합해 완성했다.

SPC그룹은 향후 베스킨라빈스뿐만 아니라 삼립식품, 파리바게뜨 등으로 AI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 개발은 허희수 SPC 부사장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희수 부사장은 SPC그룹 계열사 섹터나인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외에도 바코드를 찍을 필요 없이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두면 결제를 지원하는 AI 스캐너, AI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 등 그룹의 디



SPC 베스킨라빈스 '제미니'로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개발·출시

프래시지 자체 AI 시스템 활용 황금레시피 떡볶이 밀키트 5종

풀무원 고객경험 분석 'AIRS' 도입 농심 AI 활용해 전사시스템 개선

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베스킨라빈스를 시작으로 그룹 차원에서 AI 활용 기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간편식 전문 기업 프래시지도 최근 AI를 활용한 제품 '황금레시피 떡볶이' 밀키트 5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올해 초 프래시지가 푸드테크 기

업으로 체질 전환을 선언한 이후 자체 AI 시스템을 활용해 선보인 첫 메뉴다. 지난 4월부터 AI시스템을 통해 일일 600만 개의 제품을 분석하고, 15억 개의 누적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개발을 진행해왔다.

프래시지에 따르면, AI의 도입으로 기존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장 분석 및 관능 테스트 등의 단계가 약 2.5시간으로 줄었고, 투입 비용도 90% 이상 절감했다.

프래시지 측은 "앞으로도 AI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을 지속 확대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객 편의성·운영 효율화

풀무원은 2022년 8월 식품업계 최초로 AI 고객 경험 분석 시스템 'AIRS(A



▲풀무원 디자인팀 /풀무원
 ▲SPC 베스킨라빈스가 제미니를 활용해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신제품을 개발했다. 허희수 SPC 부사장(맨 오른쪽)이 신제품 론칭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SPC

I리뷰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AI를 활용해 고객 경험 데이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자사물 '#풀무원'을 비롯해 온라인에 산재하는 소비자의 제품 리뷰를 수집하고, 딥러닝 기술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해 긍정 또는 부정적인 고객 감정을 분석한다. 또한 AI 고객용 챗봇인 '풀무원 GPT'를 통해 고객 CS응대 신속성을 더했다.

이밖에 생애·생활주기 맞춤 식단 구독 서비스 '디자인밀'도 운영하고 있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토대로 개인 영양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식단 제안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안한다.

농심은 AI를 활용한 전사 시스템 개

선에 나서고 있다. AI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 중 이물질과 제품 및 포장, 인쇄 불량을 감지하는 검사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와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업 현장활동 간 발생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표 처리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롯데그룹은 미래 먹거리로 AI를 지목하고 그룹 차원의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GRS는 AI를 접목한 '주방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GRS는 패티 조리 로봇 '알파 그릴'은 구로디지털단지 매장에 처음 도입됐고, 로봇 튀김기 '보글봇'은 하반기 매장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롯데GRS는 이를 통해 외식업계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단순 인력 대체를 넘어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 강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력 효율 강화로 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알파 그릴 도입 시 패티 조리 시간이 줄어 근무자 1인당 월 평균 5시간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가 AI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보니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광주 맥주축제서 테라 라이트·켈리 맛보세요”

하이트진로, 광주FC 비어페스타 후원 얼음으로 채운 '맥주 연못' 등 꾸미고 K-팝 공연, DJ EDM 파티 등 준비

하이트진로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축구전용구장 제2주차장에서 열리는 '2024 광주FC 테라x켈리 비어 페스타'에 2019년부터 4회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프로축구단 광주FC와 함께 진행하는 이 축제는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 라이트'와 '켈리', '일품진로' 등의 제품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테라 라이



'2024 Gwangju FC Terra x Kelly Beer Festa' 포스터. /하이트진로

트'는 즐겁게 건강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에 맞게 제로슈거에 '맥주 다움'과 '낮은 칼로리'를 구현한 제품으로 출시 2주만에 1000만병 판매를 돌파하며 맥주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 약 1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수많은 얼음으로 가득 찬 '맥주 연못'에서 시원하게 보관한 '테라 라이트'와 '켈리' 병맥주를 마시며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함

께해오고 있는 광주맥주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표 주류회사로서 축제의 현장에서 차별화된 즐거움으로 소비자들에게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지역 방문객들에게는 광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이번 '2024 광주FC 테라x켈리 비어 페스타'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성인만 인증 후 무료 입장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24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2024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800여종 구성 50% 할인

홈플러스가 오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에 대해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줄어들고 명절을 해외여행 등 장기 휴가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추석 선물을 미리 구매해 전달하는 소비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추석과 올해 설날 선물세트 전체 매출액에서 사전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 70%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2024 추석 선물세트'로 800여 종을 구성하고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우선 홈플러스는 대표 명절 선물세트인 '육류' 상품을 알차게 준비했다. 농협안심한우 갈비 냉동세트, 갈비찜·국거리·불고기로 활용 가능한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 호주산 원료육과 전통양념 소불고기 양념을 사용한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 미국산 LA식 꽃갈비 세트 등이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미식 모임 '스텔라 다이닝 클럽' 모집

스텔라 아르투아, 29일부터 접수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가 프라이빗 미식 모임 '스텔라 다이닝 클럽' 4기의 신규 회원을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스텔라 다이닝 클럽'은 미식과 요리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조명하는 호스팅 문화에 기반하여 2022년에 1기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현재 3기까지 총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평소 방문하기 힘든 맛집에서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이색 미식 체험, 브랜드 초청 이벤트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외, 회원들 간 직접 호스팅을 통해 열리는 비정기 미식 모임 등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텔라다이닝 클럽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커뮤니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스텔라 다이닝 클럽에는 미식이나 맛집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농심, 프랑스서 신라면 테마 팝업 연다

현지 까르푸 매장 5곳서 2주간 운영

농심이 프랑스 현지 까르푸 매장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농심은 파리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맞아 경기장, 에펠탑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까르푸 5개 매장에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 팝업스토어에서는 최근 K컬처 영향으로 유럽 현지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즉석조리 '한강라면'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신라면 등 주요 제품

판매 및 쿠폰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심 국제사업부부장 이용재 전무는 "프랑스 파리에 모이는 전 세계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대표라면 신라면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마케팅으로 유럽시장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톱2 유통업체인 르플레르와 까르푸에 주요 라면과 스낵 제품을 입점했다. /신원선 기자

호텔업계, 체험·활동 패키지로 '편플레이션' 소비층 공략

(경기 불황에도 경험 위해 지출하는 소비 트렌드)

아트파라디소
스카스와 함께하는 DJ 파티 진행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더 비치 라운지'서 고급요리 제공
파르나스 호텔 제주
제트보트 체험 해양 레포츠 패키지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캐릭터 미니언즈로 볼거리 제공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더 비치 라운지' 전경.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불경기에도 재미를 즐기며 지갑을 여는 소비층들이 있다. 호텔 업계는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체험'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 호텔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들은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편플레이션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플레이션이란 고물가 등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움 경험을 위해서라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다.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행위를 넘어 일종의 '경험'에 돈을 쓰는 경험 소비, 취향 소비 추세와 맞닿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국내 호텔가는 휴가철 이들을 위해 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색 콘텐츠 마련에 한창이다. DJ 파티부터 해외 휴양지 콘셉트의 야외 라

운지, 해양 레저 및 별뿔별 체험 패키지, 캐릭터 컬래버 물놀이 이벤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호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전 객실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파라다이스시티의 초호화 호텔 아트파라디소는 최고급 스카스(스위트룸+호캉스)와 DJ 파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SOU

NDS OF KHEE' 이벤트를 진행한다. 투숙객을 위해 소주 브랜드 '키소주'와 협업한 특별한 칵테일도 제공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이국적인 감성이 가득한 발리 콘셉트의 공간에서 고급 음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더 비치 라운지'를 운영한다. 발리 해변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포토존과 야자수, 나무 소품 등으로 공간이 꾸며졌다. 돼지갈비 튀김, 마라 소스를 더한 소고기 밀 전병 등 호텔 요리사가 준비한 이색 요리와 함께 와인, 샴페인 등 주류가 제공된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새롭고 색다른 경험에 과감히 지갑을 여는 여행 추세가 부상하고 있어 파라다이스만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즐길 거리를 대거 선보였다"며 "특히 체험적 요소에 중점을 둔 콘텐츠에 대한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르나스 호텔 제주는 제주 바다 위에서 전을 넘치는 해양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털 세일링: 제트보트 어드

벤처' 패키지를 선보인다. 제트보트 체험은 중문색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레포츠로 이용객은 360도 회전 등 고난도 기술을 만끽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귀여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미니언즈 썸머 스피클레쉬' 행사를 진행한다. 인기 캐릭터인 미니언즈로 야외 수영장 곳곳을 꾸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투숙객들은 영화 속 악당을 잡는 AV L 요원으로 변신한 '에이전트 미니언즈'의 등신대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카바나, 동지베드, 선베드 등에는 미니언즈 인형과 쿠션도 준비됐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들이 고객들에게 고급스러운 시설과 더해 재미를 선사하려고 한다"며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층들을 위한 이색적인 호텔 행사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것"이라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G화학, 희귀비만증 치료제 임상 투약 개시

경구제형 MC4R 작용제 'LB54640' 시상하부비만증 환자 28명 모집

LG화학이 희귀비만증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파트너사 리듬파마슈티컬스가 'LB54640' 임상 2상 첫 시험자 대상 투약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LB54640'은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경구 제형 MC4R 작용제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1월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와 'LB54640'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올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 기술수출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선금금 1억달러(약 1300억원),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 등 총 계약 규모는 3억5000만달러(약 4000억원)에 이른다.

LG화학에 따르면 리듬파마슈티컬스는 이번 임상 2상에서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시상하부 기능이 손상되어 식욕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12세 이상의 시상하부비만증 환자 28명을 모집했다. 리듬파마슈티컬스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약물 복용 14주차 시점의 체질량 지수 변화 값을 평가하고, 연장 연구

에서는 52주 장기 복용 이후의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리듬파마슈티컬스는 지난 5월 진행된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에서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한 3대 과제 중 하나로 'LB54640' 개발 가속화를 꼽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리듬파마슈티컬스는 세계 최초로 MC4R 작용제 '임시브리(성분명: 세트멜라노타이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해 전 세계 희귀비만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브리 적응증 확대, 'LB54640', 'RM-718'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식음료 기반 토큰증권 발행 계약

핑거와 전자증권 발행 공동사업 '맛손' 신제품 예상 매출액 등으로 발행

광동제약이 디지털 금융 기술이 결합하고 있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금융IT·핀테크기업 핑거와 자사 제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자증권 발행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동제약과 핑거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상품화 협력, 디지털 자산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자산 유통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구조 및 기술요소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지난 3월 체결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토큰증권 분야 공동 사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양사는 실무 협의

체를 구성하고 투자계약증권 발행 1호가 될 식음료 제품을 기획·개발했다.

공동 사업은 광동제약이 출시할 신제품의 예상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한 후, 핑거가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전자증권은 민간 전용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다. 증권 구매자는 신제품 판매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고, 추후 관련 법안 통과 시 소유한 증권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신제품 출시와 판매에 고객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이청하 기자 mlee236@ YouTube

롯데웰푸드, 7남매 다자녀 가정에 1년간 영유아식 후원

파스퇴르 위드맘 제왕 등 출산축하 선물세트 전달

롯데웰푸드가 심각한 저출생 시대 속에서 인천 지역의 한 가정에 '일곱째 막둥이'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파스퇴르 영유아식을 1년간 후원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7남매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대상자를 만나 출산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롯데웰푸드는 '파스퇴르 위드맘 제왕', '파스퇴르 베이비 제왕 생유산균' 등 제품들과 배냇저고리, 아기띠, 젖병 등 출산 축하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전달한 파스퇴르 위드맘 제왕은 자연분만 신생아의 건강한 장 속에 풍부한 유산균을 담은 영유아식 제품이다. 제왕절개 분만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출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양 성분의 함량을 과학적으로 설계했



롯데웰푸드는 지난 15일 일곱째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향후 파스퇴르 영유아식 제품 후원을 약속했다. 롯데웰푸드 이석원 푸드영업전략부부장(뒷줄 왼쪽 첫 번째)이 제품 후원을 받는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일곱 번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롯데웰푸드는 다자녀 가족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국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육군본부와 2021년에 육군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극복하고 국방에 헌신 중인 육군 장병의 사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 관련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국내에서 34년만에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가족을 포함해 현재까지 출산을 앞둔 육군 간부 가정에 파스퇴르 영유아식 1만5000여 캔을 지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무신사, 스포츠 유니폼 등 할인행사 진행

'고 팀 무신사' 캠페인 전개

패션 기업 무신사가 스포츠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전문관 무신사 플레이어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고 팀 무신사' 캠페인을 내달 11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스포츠 종목별 유니폼을 비롯해 스포츠 의류, 잡화 등 단독 발매 상품을 선별해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행사다. 세상의 모든 플레이어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기획됐다는 게 무신사 측의 설명이다.

캠페인 기간 '노스페이스 팀코리아 레스틴 자켓' 등 다양한 스포츠 의류 및 용품과 블록코어 제품 1만6000여 종이



'고 팀 무신사' 캠페인 진행 홍보 사진 /무신사

할인가로 제공된다. 또 무신사는 캠페인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8% 할인 쿠폰팩을 지급한다.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육상 높이뛰기 우승형 선수의 푸마 사인 유니폼 및 러닝화 등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굿즈' 팝업 행사

아산나눔재단이 오는 8월 25일까지 '마루마켓'에서 스타트업의 굿즈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마루마켓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와 수집하다는 뜻의 '마켓'을 합친 말로,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된 팝업 공간이다. 기업가정신을 수집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일상 속 영감까지 얻는 기회를 선사한다. /아산나눔재단



호반그룹, 3군단 방문... 위문·장학금 70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은 강원도 인제군 육군 3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총 7000만원의 위문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문금과 장학금은 부대 발전과 군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육군 3군단 군단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산업인력공단,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이명수 전 국회의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주형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공영홍소핑, '어르신 효도밥상' 봉사활동

공영홍소핑이 '건강한 여름 나기 어르신 효도밥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영홍소핑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삼계탕 1500인분과 두유 세트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공영홍소핑 조성호 대표,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홍소핑



벤처기업협, 'HR 링크' 출범... 인사관리 혁신 도모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스타트업 인사 관리자 커뮤니티 'HR 링크'를 출범했다. HR링크는 분기별 1회 정기포럼 및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관리자에게 최신 HR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고 인사 관리 혁신을 도모한다. /벤처기업협회

현대차·기아, 로봇틱스 콘셉트 '레드닷 어워드' 수상

스마트팩토리 보전 로봇 등 최우수상 2개, 본상 1개 수상

현대차·기아가 혁신적인 로봇틱스 콘셉트로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는 24일 '2024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우수상 2개와 본상 1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누어 뛰어난 디자인을 선정한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혁신 센터(H



현대차 기아가 '2024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모베드 딜리버리.

MGICS)에 시범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보전 로봇은 4개의 모듈로 공장 내부를 매끄럽게 자율주행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이 로봇은 설비의 이상 등을 탐지한다. 점검 시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센서가 노출된 외관으로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가 강점이다.

모베드 딜리버리는 모베드 플랫폼 위에 슬라이딩 수납 모듈을 결합해 배송에 최적화된 디자인 콘셉트다. 휠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해 모베드 딜리버리에 실린 물건을 지정 장소에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

제너시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후원

아트 파트너십 본격 추진

제너시스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5년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제너시스는 글로벌 관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감과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업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관객들과 적극 소통하고자 하는 제너시스와 메트로폴리탄 미

술관의 공통된 지향점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제너시스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함께 예술 후원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창작자들의 비전을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고속도로 안전점검 나선다

29일부터 안전점검 캠페인 진행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을 하는 고객들에게 타이어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여행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고속도로 안전점검 행사는 ▲가평휴게소(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방향) ▲여산휴게소(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칠곡휴게소(경부



한국타이어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산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등 전국 4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시된다. /양성운 기자

소진공,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우수'

국정원 주관 40개 항목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가정보원 주관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4일 공영홍소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한다. 2023년에는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 등 3개 분야 총 40개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그동안 소진공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국정원·중기부 관계자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보안 대책 수립, 전담인력 강화, 각 사업 시스템의 철통보안과 관리를 통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점수를 높일 수 있었다. /김승호 기자 bada@

IM뱅크, 강원도 원주지점 개점

연 10% 적금 출시 등 이벤트 "지역밀착 금융 서비스 제공"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거점 점포인 강원도 원주지점을 개점하고 개점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iM뱅크 원주지점은 원주시 대표 변화가인 무실동에 문을 열었다. 무실동은 원주시의 행정시설과 주요 상권, 주거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좋아 원주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iM뱅크 원주지점은 기존 영업점과 달리 6개의 창구를 전부 개별 상담 형태로 운영한다. iM뱅크는 이를 통해 상담 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금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뱅크는 원주지점 개점을 기념해 강원권역 전반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점 당일 DGB금융그룹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역 경제와 금융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연10% 고금리 적금 출시, 강원 지역 이디야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금번 원주지점 개점을 통해 강원 권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겠다"며 "iM뱅크의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하는 등 향후은행이 없는 강원지역에 지역밀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립공원 재난안전 포스터·동영상 공모

국립공원공단 내달 1일부터 개최

국립공원공단이 자연재난, 산불,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2024년도 국립공원 재난안전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포스터와 동영상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포스터 공모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크레파스, 물감 등으로 채색한 손그림(8절지, 272mm×394mm)을 디지털 파일 형태(5MB 이하 jpg)로 저장해 공단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동영상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분 이내의 영상을 촬영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선 12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재난안전 캠페인, 안전교육 자료 등에 활용한다. /김대환 기자 kdh@

유인촌도 필요성 인정한 '국립근대미술관'



홍경안 역
시사일과

23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와 국립20C(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공동 주최했다. 미술인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과 다테하타 아키라 쿠사마야오이 미술관 관장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국립근대미술관 존재 이유-한국의 총체적 인식의 장'과 '한국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둘러보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근대미술관 건립은 우리 미술의 총체적 이해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뿐더러, 국내외 새로운 문화 발신의 근원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첫 번째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복기 경기대 교수는 6·25전쟁을 비롯한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같은 재난 및 인재에 의해 잃어버린 유산의 복원, 디아스

포라 미술의 집결지로서의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립근대미술관 기공의 첫 삽을 떠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한결 미술사학자는 근대미술관이 설립돼 제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한국의 미술사가 온전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는 정준보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맡았다. 정 전 실장은 국립근대미술관 컬렉션은 한국미술의 근대성과 예술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했다.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보존과 기억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 '근대의 가치'를 정립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근대미술관 조성은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근대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기관 형태에 대해선 특수법인의 민간기관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지만, 정부부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영국의 '비부처 공공기관' 모델을 제안했다. 소장품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공공기관과 이견희 기증 근대미술작품의, 국내외 기증 운동을 제시했다.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에 관한 의견도 꺼냈다. 현재 '이견희미술관' 조성 대상지

로 낙점된 서울 송현동(송현문화공원 내)을 포함해 청와대 여민관과 경호동, 수송부 부지, 그리고 대통령의 무실 격인 서울 지구병원, 청와대 경비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202경비대 부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이견희 기증품을 한데 모은 종합 백화점식 이견희미술관은 한계가 명백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병철 회장과 고 이견희 회장이 수집한 기증 유물 중 근대기 미술품을 가려 국립근대미술관의 기반으로 삼고,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고 이견희 기증실'을 설치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들 공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말을 통해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건립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확약은 물론, 당위성과 설립의 논리가 보다 폭넓게 공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지지와 동참을 위한 미술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대든, 현대든 미술관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김지수 집
김서현 (산업부)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첫 해, 카카오톡을 깔고 친구가 늘어나면 "너도 스마트폰 샀어?" 반가워했다. 당시 카카오톡은 혁명이었다. 귀엽고 친근한 공지와 단출한 기능, 점점 발전하는 성능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누군가와 돈 걱정 없이 맘껏 연락할 수 있다! 지금은 전혀 다른 기업의 또 다른 플랫폼 명이 됐지만, '틱톡'이라는 메신저도 있었지만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을 수 없었다. '디지털 디톡스'의 첫 번째가 카카오톡 삭제가 될 만큼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지만 탈출하고픈 족쇄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범수의 카카오 왕국이 붕괴했다. 23일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기의 카카오톡을 구하기 위한 경영채신위원회 위원장인 그가 구속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채신에도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명의 CEO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과거 김 위원장이 밝혔던 꿈이다. 김 위원장은 꿈을 정말로 이뤄내고야 말았다. 카카오 내에서 수도 없이 많은 CEO가 탄생했다. 회사를 다니며 회사의 지원을 받아 CEO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야망 있는 직장인이라면 꿈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의 꿈은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독점체제 속에서 골목 상권 몰락과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온갖 오점을 남기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대기업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줬다. 각 개인의 일탈도 담이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가 생각난다. 김 위원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시 제목은 마음을 말하지만 시의 내용은 잘못된 만남, 조심해야 할 만남, 비참한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무엇인지 말한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가장 잘못된 만남은/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가장 아름다운 만남은/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5일 (음 6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인생은 여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48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노후대비. 60년생 산배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72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84년생 일찍 귀가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 소** 37년생 협의하여 진행.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49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엔지 마음은 편하다. 61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73년생 손꼽아 웃던배가 뜻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85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 호랑이** 38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안정이 눈앞. 50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62년생 오늘은 모처럼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74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86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접자.
- 토끼** 39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51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어야 한다. 63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87년생 기죽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이루어진다.
- 말** 40년생 오늘 일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52년생 자식이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보람 있다. 64년생 초면의 자리에서 이상의 유혹이. 76년생 부모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誠說)로 우기지 마라. 88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면 부지런히.
- 뱀** 41년생 중북이나 삼계탕을 가족과 해 먹자. 53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5년생 도박성 투자는 금물. 77년생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89년생 오늘은 온종일 운전이 조심하고 다른 일에도 양보를 하는 것이.
- 닭** 42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54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비상금을 모으지 않으면 후회. 66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78년생 결과를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90년생 푸바오를 보러 가기 위해 여행 계획을.
- 양** 43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55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67년생 예속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없으니 기획해라. 79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91년생 오늘은 예민하다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 원숭이** 4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56년생 전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68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80년생 겉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마라. 92년생 오늘은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
- 닭** 45년생 꿈이 있다면 늪지 않는다. 57년생 남편 밑에 연중유골(年中有骨)을 상쇄하도록. 69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81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다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93년생 오랜만에 세상이 꽃동산이다.
- 개** 46년생 자동차 타는 먼 여행을 금하고 천천히 행동. 5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하다. 70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82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94년생 지장 기도를 해 보면 기도는 이뤄진다.
- 돼지** 47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59년생 조상의 도움으로 거레가 무사히 성립된다. 71년생 자신의 헛된 욕심이 회를 부른다. 83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95년생 사랑이 지나치면 광란이 되니 평정심을 찾도록.

김상회의 四季 운칠기삼

나이가 들고 보니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더군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말을 건넸다. 능력이 좋아도 운이 반쳐지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는 운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남보다 앞서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운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건 아니다. 사주에 따라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사주를 보니 그 시기가 운이 들어오는 때였다는 걸 뒤늦게 알기도 했다. 운 이상으로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이다. 노력이 없으면 운이 들어와도 힘을 쓰지 못한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운이 좋은 시기이니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운이 들어왔다고 빛을 보는 일은 없다. 기본 전제조건은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자세다. 그런 상황에서 운이 들어오면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된다. 노력이라는 디딤돌과 운이라는 날개가 만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드는 장점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이다.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또는 자기 능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운이 작용했음을 알게 되면 겸손해진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 외의 부분은 운이 좌우한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기 위해 팔자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100원 버스' 경남도 곳곳으로 확대

목포시

27일 '목포해상W쇼' 공연

목포시는 '2024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을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북항 노을공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지난 4~5월에 이어 3회째인 목포해상W쇼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와 열대야를 잊게 해주는 신나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워터밤으로 진행된다.

래퍼로 활동하는 JD와 유령의 신나는 힙합 공연으로 한여름 밤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 후, 이어지는 EDM 워터밤 공연에는 메인 DJ로 나선 개그맨 겸 가수인 박명수(G-Park)씨가 거대한 물줄기와 함께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교통공사

1호선 전동차 문화유산 지정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 전동차'가 역사적 상징성 및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4일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동차는 1985년 7월 1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 시 최초 도입된 14개 편성의 전동차 가운데 하나로 2018년 7월까지 33년간 운행됐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첫 번째 전동차로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바다가 있는 부산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형·스테인리스강 차체로 최초 제작돼 상징적 의미도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해시-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

경남 김해시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재정비 권한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김해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유희부지 양도·양수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방안 마련 등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서 '대중교통비 무료화' 핵심 안건

김해시·거제·함안 등 시행 진주·거창·의령 등 내년 추진

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가 경남도로 확산된다.

지난 22일 마산 로봰랜드에서 열린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는 '경남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는 안전 발표를 통해 하동군이 지난해부터 경남 최초로 시행한 초·중·고 '100원 버스' 사업과 올 7월부터 그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 시행할 것에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하동군은 2023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에 10대의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



하동군 '100원 버스' 운행 모습. /하동군

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100원 버스 시행 이후 초·중·고 학생의 2023년도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동군은 2024년 7월부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이 100원만으로 지역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누구나 느끼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에 대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하동군의 100원 버스 사업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그간 경남도는 전남도에 비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딘 행보를 보였지만, 교통이 곧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초·중·고 학생들과 어

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하동군 100원 버스에 이어 창원시가 어르신 월 8회 무료, 김해시가 어린이 무료, 거제시가 어린이·청소년과 어르신 일부 무료, 함안군이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거창군·의령군·함양군도 내년부터 버스 이용료 100원 또는 무료화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하동군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노령 인구가 지난해 벌써 20%를 넘어섰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동군의 100원 버스 사업이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돼 경남이 대중교통 복지 정책의 선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포항시 "모래로 만든 '태권V' 보러오세요"

27일~28일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축구선수 황희찬 등 인물상도 표현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2024 제8회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포항의 낭만, 모래예술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일대해수욕장에 모래조각 작품 3점이 전시된다.

메인 모래 작품은 '포항의 성장·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라는 작품명으로 포항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

그 속에 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담은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 리시모어산 조각상을 패러디해 포항과 인연이 있고 정치·경제·체육·문화예술·사회 각 방면으로 기여하며 포항을 알린 이명박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황희찬 축구선수, 전유진 가수, 남대영 신부 인물상을 조각해 표현했다.

또한 포항 구룡포를 관광명소로 만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명장면을 구현한 모래조각 작품과 7~80년대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유발하는 로봇 태권V와

마징가Z를 콜라보한 조각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영일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에도 영화 '라라랜드'의 낭만적인 댄스 장면을 모래로 조각한 작품이 전시된다. 모래조각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10월 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에서는 '모래 놀이터', '달빛 모래건기',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버스킹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저녁 8시부터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포항 밤바다와 어우러져 장관



영일대 해수욕장의 메인 모래 작품 '포항의 성장, 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 /포항시

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호성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의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휴가철 관광객들이 포항 해변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경북도, 월 최대 50만원... 접수 시작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경북에 직장 주소와 두고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나영조 기자

부산 기장군 '역대급 폭염' 적극 대처

하루 6회 이상 살수작업 등 진행

부산 기장군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기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은 22.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폭염 발생일수도 평년보다 4배 많은 2.8일을 기록하는 등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폭염특보 발령 시 5톤 살수차 6대를 투입해 5개 읍·면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32km 구간을 순회하며 하루 6회 이상 살수작업을 진행한다. 계획이다.

또 ▲황단보도 그늘막 152개소 운영 ▲무더위 쉼터 231개소 운영 ▲버스 승강장 에어컨 121개소 운영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폭염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 ▲경로당 냉방비 지원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촘촘한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가톨릭의대 교수들 "9월 전공의 모집? 의대증원 멈춰야" /사진 뉴시스 ▲도봉구, '무연고 어르신 유산기부 지원사업' 1호 기부자 배출

▲용산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복지수당 매달 5만원 ▲"뜨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26일 구속심사



▲공항철도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출국심사 시간 조정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발령...서울시, 물청소차 운영 강화 /사진 뉴시스



식품업계
시가 신제품 개발
리뷰 분석까지
니



Life

호텔업계
이색 패키지로
편플레이션족 공략
L2



아동기부터 자립 후까지...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서울시, 2028년까지 1065억 투입 필요·육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아동에 레슨비, 청년에 주거비 제공 긴급 위기상황엔 'SOS자금'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 이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제공하고 SOS자금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1065억 8900만원을 들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개인의 필요와 육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

꿈찾고키우기 내공 찾기 프로그램 운영 1:1 진로설계 컨설팅 맞춤형 학습지원	자립역량기르기 나만의 공간 조성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 마음건강 돌봄
든든한 첫출발하기 맞춤 생활·경제 지원 확대 주거·의료 안전망 구축 취업지원 강화	지역사회 함께하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인별 맞춤형 자원연계 자립청년 자조모임 지원
추진 기반	전담솔루션팀 신설+온라인 통합 플랫폼 고도화 (자립지원 전담 기관 확대 운영)



우선 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초3~중3)들이 꿈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레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초·중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체험데이'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보호아동들이 장을 봐서 요리

하거나 직업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우울증이 심해서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서울아동 힐링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6개월간 전문·개별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시설로, 1기수당 30명씩 연 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홀로서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민간 월세, 학교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월세·기숙사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발병 등에 따른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1인 7만원 상당)도 지원한다. 입·통원 의료비, 암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의료비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보호 종료돼 나간 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시설장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지원 근거가 없어 애매하다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지원 종료 이후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가정' SOS자금을 투

입해 자립청년을 돕기로 했다. 민간후원금 모집을 통해 2028년까지 2억원을 적립·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실장은 "최대 지원 금액이나 수혜 대상은 좀 더 고민해 세부계획 수립시 참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39세까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SOS자금으로 제공하면 큰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형 인턴십을 운영해 매년 88명이 구직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취업에 성공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새 출발 응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김 실장은 "청년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많아지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도움받고 출발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희연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죄"

(서울시교육감)

1980~90년대 피해자에 사과 뜻 전해 임용제외교원법 시행으로 구제 전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80~90년대 시국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국가 폭력으로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겪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의 이날 게시글은 지난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

용제외교원법)'이 시행된 데 따른 행보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노동운동 관련 사건 및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가의 사과 및 실질적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규명했다"라며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

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항상 생각하며, 이분들의 위훈을 자라나는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하겠다"라며 "국가 횡포로 인해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현진 기자 lhj@

내년 하반기, 수원발 KTX 개통 추진 속도

운행 횟수 늘고, 소요시간 단축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시스템(전기·신호·통신)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다. 8월 31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9.99km 길이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 개통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3499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부산행 KTX가 하루(평일) 4회 출발하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횟수가 12회로 늘어난다. 호남선(광주·목포행) KTX는 신설된다. 광주·목포행은 하루 6회 운행할 예정이다.

소요 시간은 단축된다.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현재 2시간 40분(KTX 기준)에서 2시간 16분으로 24분 줄어들고, 광주·목포는 2시간 가까이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 /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내년부터 비거주건물 재생열 의무화

3만㎡ 이상 신축 건물에 의무기준 도입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은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는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짓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해 지하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

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 펌프 보급도 활성화한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25일 (木) 음력 : 6월 20일

수도권 날씨 26~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25/31, 수원 26/34, 평택 25/34, 파주 25/32, 가평 24/33, 양평 25/33, 용인 26/34, 연천 25/33, 동두천 25/32, 백령도 23/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힐러리 클린턴 "뭇 깐 유리천장, 해리스가 깰 것" / 사진 뉴스시스
▲양대노총 위원장, 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 참석

▲중상무부도 대기업계에 3중전회 결과 홍보... "개방 확대"
▲러시아 "한국의 모든 대러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것" 경고



▲'총선 참패' 영보수당, 당대표 선거 착수... 11월 2일 선출 / 사진 뉴스시스
▲중국 전문가, 해리스에 혹평...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아"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시에 바라는 게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질병,
거침없이 날려버려!"

LG의 AI기술은
건강한 삶 속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AI연구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이주영 선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0101 0 01001 0100 10101 0101 0 0100 0100 0101 010 1 1 0 0101 010 1 1 0
0 011001001 0 011001001 0 0110 0 0001100 0 0101011 1 1 0 01 011 0 1
0 011001001 010 1 0 0 0110 0 0001000 011011 0 1 011 00